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 돌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접수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모금액 총 13억8000여만원 역대 최고 실적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누적 모금액 10억 원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은 총 13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무주군의 모금액은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93% 이상 늘어나며 뚜렷한 성장 곡선을 그렸다.

기부 참여 열기도 크게 확산됐다. 참여 건수는 전년 5천487건에서 1만2천194건으로 증가했고, 참여 인원 역시 5천328명에서 1만1천85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무주 연극 동아리 활성화 지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지원 등 3개 지정 기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기부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이들 사업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어르신 변기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은 2천2백만 원의 모금이 완료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누적 모금액 10억 원을 돌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예정이다. 무주군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답례품 확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무주군은 영동세계약엑스포와 울산에서 열린 제3회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등 전국 각지 행사장을 찾아 7차례에 걸쳐 홍보전을 펼치며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적극 알렸다.

이 과정에서 무주 대표 특산물과 관광상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해

기부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무주군청 누리집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해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기점으로 소개하는 등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현재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59종으로, 반딧불이 신비 탐사권, 산골영화제 입장권,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권 등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형 상품도 다수 포함돼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개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장수군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군민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지만,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품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제출 서류는 달라진다. 기존거주자(25.10.19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규거주자(25.10.20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명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조폐공사 'tak' 시스템을 활용한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첫 지급은 2월 말로 예정돼 있으며,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부터 지급된다.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누락 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에 필요한 세부 서류와 사례별 지급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은 장수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신규 시행

진안군은 여성 위주로 추진되던 난임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남성 난임 치료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저출산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난임을 부부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남성 난임에 대한 치료 부담을 완화하고 부부가 함께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남성 난임(무정자증)을 진단받고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남성이 대상에 해당 된다.

지원되는 시술은 고초조직 정자 추출술과 정계정맥류 절제술로, 1인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시술 본인부담금의 90%를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세부 지원 기준과 금액은 추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상반기 유해야생 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

진안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돼 1개 읍·면 전 지역에서 운영되며,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

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 6일에는 경찰서와 야생동물관리협회가 합동으로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 업무 지침, 안전 수칙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 박차

분야별 주요 업무 계획 공유

무주군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며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과 생활 인구 300만 시대 도약'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 정립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주요 업무 보고회는 7일부터 9일까지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관광진흥과를 시작으로 군청 21개 부서와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석한다.



보고회에서는 2025년 분야별 성과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2026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들에 대해 부서 간 공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인구와 기후, 경제 등 다양한 여건 변화가 국정 전반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회가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역전의 자세로 깊이 고민하고 끝까지 실천하며 협업을 강화해 군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에 속도를 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군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업무협약

진안군은 7일 군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과 지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교육·문화 체험을 위한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청

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춘성 진안군수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채명숙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탐방활동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지원 △인적·물적



자원 연계 △청소년 중심 농어촌 육성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동계 회원대회 성료

장수군은 2026년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동계 회원대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동계 회원대회는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장수지부가 주최하고 장수사과원에 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전국 33개 지부 사과 농업인과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 교류를 겸한 대규모 행사로 진행됐다.

전국 단위 사과 농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최신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사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일식 2축·다축 고밀식 재배기술 △세형 방추형 수형 관리 △2026년 병해충 방제 전략 등 고품질·다수확 실현을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이 병행됐다.



특히 일본 아오모리사과협회 명장 니리타 츠카요시를 비롯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선진 재배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최훈식 군수는 "기후변화로 국내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확대되면서 장수군은 사과 주산지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라며 "군에서도 장수 사과 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번 동계 회원대회가 한국 사과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